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KF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692호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 권선택 시장 정치적 운명의 날 14일로 확정

### 공직선거법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4일로 최종 결정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판결 선고를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2호 법정으로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권 시장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무죄가 되면 계속 시장직을 유지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시정에 탄력이 붙게되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유죄로 인정되면 판결과 동시에 시장직은 정지되고 행정부 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시장을 이끌게 된다.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 출

마도 어렵게 된다.

권시장은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포럼관계자들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시장직 당선직 후인 2014년 12월 기소됐다.

대전지법과 고법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직 박탈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평결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기사회 생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파기환송

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권시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최종 거취가 대법원에서 정해지게 됐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사건이 접수된 이후 재판부 배정과 상고이유서 제출 등 법리적 절차가 진행됐다.

권 시장의 대법원 판결일이 결정되면서 대전시 관가는 물론 지역 정기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장 대전시는 권 시장의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판결이 무죄로 나오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전시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시정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유죄가 되면 대전시정은 그야말로 혼란에 휩싸이면서 시정이 미비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정 치권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나올 것을 내심 기대하면서도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권 시장의 정치적 운명에 따라 줄미를 저울질하고 있는 시장 예비후보들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들도 권 시장의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정복기자

### 성평등기획 특별보좌관

#### 대전시 배영옥 씨 임용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새 성평등기획 특별보좌관에 배영옥(裴英玉·49) 전 아름다운가게 대전총점본부장을 임용한다.

예정자는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현 대성여자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목원대 대학원을 졸업한 대전 출신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여 동안 (재)아름다운가게에 재직하면서 대전총점본부장, 매니저 등을 역임했다.

(재)아름다운가게 재직 당시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대함으로써 재활용 기부 문화 확산의 중심역할을 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 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등 대전을 대표하는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성 평등사회 실현'을 사회구성원이 함께 주구해야 할 공동과제로 인식, 여성운동의 지역화와 대중화에 적극 참여해 성평등 실현 및 사회개혁을 위해 앞장 서 왔다.

배영옥 예정자는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와 시의회, 여성단체 및 시민들과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대전시의 양성평등 정책이 성공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 시장은 "민선6기 4년차인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여성정책을 발굴하기 보다는 기존의 여성정책이 가지고 있는 '성평등 확산'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민선6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이행상을 점검하고 강화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록 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1천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헌법의 규범이라고 까지 하는 농협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서명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맘그릇 생기기만 하기에 겁겁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현법은 국민 한 사람이라도 피해보지 않아야하고 농업 가치 헌법제정청원 서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한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업을 지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1천만명에게 서명을 받아 농협연구소에 제출하면 농업연구소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해 서명자체가 중요함을 암시했다.

현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일을 선물공세로 서명을 받아 현법을 만들려는 서명은 중단되어야하고 현재까지 받은 서명은 무효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농협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의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확보 및 홍수방지,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이 현법에 반영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내포=김정현기자



대전 동구, "행복연탄으로 온기를 나눠요"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지난 11일 신동등 일원에서 동구청 직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가구를 직접 찾아가 '행복연탄나눔' 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일부터 동구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행복연탄 나누기 후원금 1차 모금이 1천여 만 원을 넘어선 가운데, 구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아울러 더 많은 주민들이 모금 운동 동참을 위해 마련됐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이기정 할머니 영결식

#### 당진 시민장 형태로 '최고 예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故이기정 할머니(享年 93세)의 마지막 가시는 길만큼은 외롭지 않게 됐다.

12일 당진시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30분 당진시청 1층 주차장에서 거행되는 이 할머니의 영결식은 시민장 형태

로 치러진다.

영결식 공동장례위원장으로는 김홍장 시장과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장,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문화재단 이명남 이사장(당진 평화의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이 맡아 17만 시민들을 대표해 최고의 예우

를 다할 계획이다.

영결식은 약 1시간 동안 거행될 예정이며, 이후 이 할머니를 배운 운구차량은 노제가 진행되는 당진 버스터미널 광장 당진 평화의 소녀상과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에 위치한 이 할머니의 자택을 들른 뒤 회장터가 있는 천안 주모공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후 이 할머니의 유해는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맹향의 동산에 안치돼 영면에 듦다.

한편 11일 故이기정 할머니의 장례 첫날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시장을 비롯한 당진시민 500여 명이 조문했으며, 12일에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당진=최근기자

##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CHEERS!  
KOREA



# 충남도내 광산주변 거주민 10명 중 4명 석면질환 노출

최근 2년간 7개 시군 광산주변 지역민 3323명 중 39.33% 석면질환 의심자 집계

충남 공주시 등 7개 시군 광산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민 10명 중 4명이 석면 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와 일선 지자체의 석면 관리 부재로 인한 주민 건강 문제 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송덕빈 의원(논산) 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 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7개 시·군 광산주변 지역민 3323명을 대상으로 검진한 결과, 39.33%가 석면질환 의심자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석면질환 의심자 45명, 흉부 X-ray 상 의심자 1262명(추적관찰 639명, 추적검사 114명, CT대상자 509명) 등이다.

나머지 검진을 진행하지 않은 시·군까지 더하면 석면 질환 의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송

의원은 내다봤다.

문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 멜슬레이트 건축물이 도내 10만 동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 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철거 예산은 '쥐꼬리'라는 점이다.

실제 일선 시군 석면건축물 철거 추진사업에 도비 지원은 고작 1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1급 발암물질로 알 려진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악성종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며 "그럼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관심과 행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석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동시에 국비 확보 등 수 단을 가져야하는 안 된다"며 "도의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절실히다"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 "대전시 미세먼지 나쁨 문자발송 일부기관·단체에만"

안필승 의원, 대전시의 안전불감증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대전 광역 시의회 안필승 의원(비례 정당, 동구3)은 10일(금)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

사에서 미세먼지 발생시 대전시의 시민에 대한 홍보 부족과 1회 15만원 예산으로 일부 기관·단체에게만 문자발송하는 대전시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대전시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대상이 2015년 4,010 건, 2016년 4,541건, 2017년 4,541

건으로 대부분 주요 기관·단체 및 일부 시민에 한정되어 있고,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서 대시민 홍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홍보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 시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대전시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질책했다.

또한 대전시에서 매년 시민의 건강을 위해 수백억의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1회 미세먼지 발령 안내문자로 15만원

김정환기자

아산시의회, 2017 하반기

### 의정연수 실시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로 의원 11명과 사무국직원 등 25명이 부산 크리운하버 호텔에서 2017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연수는 의원 상호간 공동체 의지를 학습하고 생산적 의회 운영을 통한 선진정의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제199회 정례회를 앞두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방법과 2018 지방선거 대비 공약개발 등에 관한 강의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학습과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의원들이 더욱 공감하고 실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세션별 세부 교육내용으로 예산안을 쉽고, 효과적으로 심사하는 방법, 예산서 분야별 심층 분석방법 및 체크사항, 예산안 심사의 전략과 사례별 접근 전략, 예산안의 성과예산서 파악 및 분석 요령 등에 관한 교육과, 2018 지방선거 대비 지방선거 공약개발, 무엇을 어떻게 제시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방선거 공약 개발 전략 및 과정, 공약의 이슈선점과 차별화 기법,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인가?, 개발된 공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지역/주민의 정책수요 파악 방법, 공약개발 주의 사항과 사례 등에 관한 교육 등 심도 있는 연수를 실시했다.

어선=리량주기자

중구의회 문재광 의원

### '상곡인권상 우수상' 수상



대전시 중구의회 문재광 의원은

10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63빌딩 내에서 개최된 '제17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에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상곡인권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문재광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 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자활과 생활안정을 돋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과 지원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왔다.

문재광 의원은 "한국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혁신하신 (고)상곡 장기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초대 회장의 송고한 뜻을 기리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공주시의회, 의원간담회 열어

공주시의회(의장 윤홍중)는 지난 10일 의회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5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진 의원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4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30개의 인건과 의정활

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이상민 의원, '원코리아 국제포럼' 참석차 訪美

### '동북아평화와 안보 위한 한·미 협력강화' 주제 연설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사진)

은 오는 14~15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2017 원코리아 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핵 개발로 불거진 한반도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모색한다.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길·오제세·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박찬우 의원 등

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글로벌 피스체단,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미국 이스트웨스트 인스티튜트(East West Institute)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를, '한반도의 위기 해법 모색'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지도자 40여명이 모여 동북아 평화는 물론 한반도 통일 방안까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15일 로널드 레이건 국제부역센터에서 '동북아평화와 안보를 위한 한·미 협력강화'를 주제로 한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과거 냉전 시대 보수·강경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이정복기자

## 이명수 의원 '그리운 미래' 북 콘서트 대성황

지역주민과 지지자비롯 당원·당직자 등 500여명 참석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아산그랜트파크호텔에서 북콘서트 「그리운 미래」를 지역주민과 지지자를 비롯한 당원·당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의원은 '깊어가는 가을과 다가오는 겨울에 모두가 염원하는 미래에 대한 그리움'을 그려내 「그리운 미래」라는 책을 내고 북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오후진 작가는 추천사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한 모두의 소망 '그리운 미래', 아마 그 날은 상생과 화합의 그 날일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그 날은 2013년 12월, 모두 즐기자게 '대한민국과 충청'이라는 주제로 출

간됐다.

내년 지방선거에 유력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수 의원은 이번 북

콘서트를 통해 정치적 배경을 국

민과의 대화로 시작하는 뜻 깊은 자리로 만들어, 과거 순국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현재의 조국에 대한 미래를 여는 희망과

비전으로 디자인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

도로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 아니냐'라고 정가는 해석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이공휘 의원, 무궁화 대표지역 기반 마련 추진

충남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무궁화 대표지역 위상제고 기대



충남도의회 기방정부 차원의 무궁화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으로 추진하고 무궁화의 고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를 전국 제일의 무궁화 대표지역으로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무궁화 홍보와 거리 조성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등 시장·군수 참여의 기회도 넓혔다.

아울러 도지사 소속으로 무궁화 진흥 자문위원회를 설치, 무궁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무궁화는 상징적으

로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무궁화를 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무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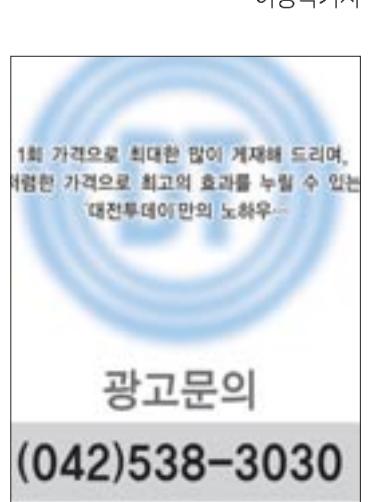
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

위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리를 대표하는 무궁화를 생활 속에서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느낄 기회가 되길 희망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 천안시의회 원도심 활성화 연구모임, 선진도시 견학 실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G타워, 래미안 인양메가트리아 스카이라운지 주요 시설물 견학



천안시의회 원도심 활성화 연구모임은 지난 9일 도심 내 스카이라운지 설치 및 운영중인 선진도시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부지에 건립 예정인 스카이라운지(전망대) 건설과 관련하여 선진 시설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연구모임 대표 의원인 인치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각현, 서경원, 인종혁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8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 날 일정은 경기도 소재 래미안 인양 메가트리아 스카이라운지,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G타워를 차례로 방문하여

견학을 마친 인치경 의원은 '타

도시의 우수사례에서 우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고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면서 '현재 천안시가 추진 중인

동남구청사 부지 내 스카이라운지가 천안의 랜드마크로 시민들

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 "정치꾼이 아니라 시민들의 진정한 심부름꾼 될 터"

이상표 전 박수현 보좌관 시의원 도전장



전 의원과 동고동락해왔던 인물이다.

이상표 전 보좌관은 "안희정 도지사의 당선을 도우면서 박수현 대변인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고, 이후 기가끼이에서 박 전 의원을 보좌하면서 낮은 지대로 시민들을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에 대해 개인교습을 받은 셈"이라며 "서민정치, 생활정치의 표상을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주시 상왕동에서 태어나 지금껏 고향을 지키고 있는 그는 한 집안에서 2명의 판·검사를 배출 할 정도로 쟁쟁한 300년 전통의 조례 이우태 선생의 13세 손으로, 공주시발전협의회 내지연예주조각기 위원장, 옥룡동새마을협의회

회 부회장 등의 역할을 맡아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 빌고 나서고 있다.

# “정파 초월한 협력·토론문화 정착... 주민 생존권 수호 최선”

## 대전 중구의회 김귀태 의원

대전 중구의회 김귀태(국민의당·목동, 중촌동, 용두동) 의원은 현장 의정을 강조한다. 왜냐면 모든 정치의 출발점도 현장이고, 의정 생활의 중심도 현장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동네 주민 한 분 한분을 만나 그들에게서 지역 발전의 조언과 충고가 현재의 자신을 있게 한 큰 힘이 됐다고 말한다. 대전투데이는 김귀태 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제7대 대전 중구의회가 개원한지 3년이 지났는데요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지역 주민의 땀과 꿈, 삶과 함께하는 의정철칙을 모토로 현장밀착형 의정 활동에 집중해 왔습니다.

제 6대 의회 전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파를 초원한 협력과 토론풍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상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은 재선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지역 현인을 위해 앞장섰고, 특히 현장 의정에 힘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해 주시죠.

목동 3.4구역 재개발 진행이 속도감을 내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 노력했고 중촌 1구역 재건축, 용두 1.2구역 재개발 또한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대전 중구지역의 현안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대전 중구는 대전의 모태지역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효문화운동의 발전을 위한 전진이 정책적 방향의 두 축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진했던 17개동 재개발, 재건축의 집중 지원과 주민의 풀로운 삶을 위한 문화공연의 확대, 도시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친께서 어려운 시절 야당의 지방의원을 하셨고 소천하신 지역 민주화의 대부 송좌빈 선생님께서 살아 생전 야당의 맏아들이 되리하신 말씀을 새기며 2002년 노무현을 만나 본격적으로 현실정치에 뛰어들었고 열린우리당 대전 사무처장, 국회 외통위원장 보좌관을 거쳐 2010년 제 6

대 중구의원, 7대 중구의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의원님은 어떠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지요.

현장민원 채집과 사랑방 간담회의 상시적 운영, 개인밴드 및 sns 활용을 매일같이 접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시적 민원 접수된 사항을 접경하고 경청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은 의정 활동이 있다면?

지방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조례안 대표발의와 서대전역 호남선 열차운행 증차 촉구 건의안, 독립운동의 상징인 민족대표 33인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한 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동사모 중구 지회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요건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요.

주민이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상황식 공천에서 나아가 지방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합니다. 정당에 종속되는 공천제를 없애고 주민만 바라보며 주민의 애환을 풀어주는 지방의회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제 내년 6월이면 3선 의원에 도전 합니다. 중구의회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정상적 관계 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주민이 바라는 의장직에 나설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드릴 말씀은?

지난 8년 지역 주민 여러분께 받은 과분한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두배로 일하고 세배로 뛰겠습니다.

우리 목동, 중촌동, 용두동 골목골목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정당에 의지하지 않고 주민만 바라보며 주민의 힘으로 새로운 의회질서, 쌍방향 밀착형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삶 속에, 주민의 땀 속에, 주민의 꿈 속에 사랑받는 의원으로 함께하는 귀한 동네, 주민 대표가 되겠습니다.

보며 주민의 힘으로 새로운 의회질서, 쌍방향 밀착형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삶 속에, 주민의 땀 속에, 주민의 꿈 속에 사랑받는 의원으로 함께하는 귀한 동네, 주민 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가장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

매번 놀라운 기술에서 만족하게 만드는 기술,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기술은 자연까지 생각하고 보호하는 기술인 것을 한국타이어는 알고 있습니다. 전동휠 자전거 기술로 만들어가는 미래적인 환경! 한국타이어가 지향하는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enfren**  
엔프レン 효과란?



## ●정정●

초등학교장 초청 설명회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3일  
오후 2시 대  
전 청소년 위  
캔 센터에서  
열리는 '대전  
청소년위캔센터 초등학교장  
초청 설명회'에 참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취임식



김경훈 대전시  
의회 의장= 13일 오전 11  
시에 유성호  
텔에서 열리  
는 대한전문  
건설협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폐·공가철거공사사업 현장 방문



박용갑 중구청  
장= 13일 오  
전 11시 대흥  
동 정비구역  
내 '폐·공가  
철거공사' 사  
업 현장 방문.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장종태 서구청  
장= 13일 오  
후 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불우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에 참석.

대덕구 축제추진위원회



박수범 대덕구  
청장= 11일  
오후 2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대덕  
구 축제추진  
위원회에 참석.

서대전우체국이벤트 당첨자 경품 전달

서대전우체국은 지난 10일 우체국에 있는『Hot Summer, Cool Event』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을 전달했다.

『Hot Summer, Cool Event』 고객이 이벤트는 지난 7월 12일~8월 11일 동안 요구불에 금과 정기에 금 기입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경품으로는 드림세탁기(1명), 공기청정기(1명), 전기밥솥(1명), 자전거(2명), 잡곡세트(96명) 등을 준비했다.

드림세탁기를 경품으로 수상한 고객은 "세탁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당첨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한우향 서대전우체국장은 "이번 이벤트로 많은 분들이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행운도 누리고 서로가 축 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고객들이 우체국을 자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市, 대규모점포에 지역기여도 향상 적극 협력 당부

## 상생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4개 백화점과 14개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업체 간 상생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6년 대규모점포 지역기여도에 대한 점포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지역기여도 목표치인 지역상품 구매 7%, 지역업체 활용증 인쇄 70%, 기타용역 60%, 지역인력고용률 95%, 공의 사업 참여 매출액의 0.35%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통 시장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전통 시장 이용자 할인 쿠폰 지급과 홍보물 배부 등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다양 한 결연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대규모 점포 내 지역상품



2017년 청소년어울림마당 'We드림' 성료

## 다양한 체험활동·볼거리 제공

대전시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는 대규모점포와 결연을 맺은 전통시장도 참여를 유도해 보다 효율적인 간담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또한, 지역기여도 조사 대상을 백화점, 대형마트 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11일 동구 대동에서 대전버스운송 사업조합(이사장 김광철)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갖고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 세대에 연탄 5,500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전 청소년위캔 센터(센터장 권부남) 주최로 학생, 주민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We드림' 행사의 끝을 알리는 폐막식 선포와 축사 순으로 진행됐고, 이어서 청소년 동아리의 활동실적 발표와 노래, 댄스 등 무대공연이 펼쳐졌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매달 직

이영호 기자

대덕구, 금강로하스 엘크루아파트 입주 본격화

## '이동민원실' 서 한 방에 처리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10일 금강로하스 엘크루아파트(대덕대로 1587)에 석봉동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석봉동에 위치한 금강로하스 엘크루아파트 입주가 10일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관리사무소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한 것이다.

이날 이동민원실 현장을 방문한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앞으로도 발전행정을 넘어 김동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한 달 동안 이동민원실에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침이다.

김태선기자

## 노노케어 봉사단 연계식 진행

##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산내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0일 정오 대별동 복지관에서 70여명의 어르신 자원봉사들과 독거노인의 정서안정화를 위한 노노케어 봉사단 "빛나는 인생, 빛남 봉사단"의 연계식을 열었다.

손영화 협의회장은 "학생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봉사를 하게되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인성을 키우는 체험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고교 총동문회장 협의회는 대전에 소재한 30여 개 고등학교 총동문회장들이 대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지난 2016년에 발족한 단체로써 올해 대전 시교육감, 대전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김태선기자



자사와 독거노인은 1년 간 일주일 2회 안부전화와 한 달에 1번 가정방문의 노노케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유성구 신성동,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 연탄행사 실시

## 하기동 3가구에 600장씩 연탄배달 봉사

유성구 신성동(동장 송웅섭)은 유성구 용산동 소재 주씨애치씨랩으로부터 연탄 1,800장을 후원 받아 지난 10~11·11.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직원 12명과 씨애치씨랩 임직원 30명은 직접 세대에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가구 중 연탄을 사용하

박봉관 기자

# 창업보육사업 'Start-up 네트워킹 데이' 열려

선문대, 교수-학생-기업이 상호 발전 위한 멘토-멘티 3자 협약 체결 진행

선문대 창업보육센터(센터장 백광현)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주간 열린 '주(住)·산(産)·학(學) 글로컬 페스티벌' 기간에 Start-up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선문대 구성원의 결속을 다지는 2017 선문 Start-up 상생협력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선문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8개사와 교수, 창업동아리 학생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창업을 위한 기본 교육인 Start-up 가이드를 시작으로, 교수-학생-기업이 상호 발전을 위한 멘토-멘티 3자 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교수는 입주기업과 산학공생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컨설팅을 제공, 입주기업은 창업동아리에게 기업 운영 노하우와 제품 개발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해 창업동아리가 실질적 창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예정이다.

또, 충청권 소재의 창업보육센터와 연



합해 창업자간 네트워킹 협업을 유도하는 2017 충청권 연합 Start-up 네트워킹

센터, 충북대 G-테크벤처센터, 호서대 벤처창업보육센터와 입주 기업 22개사가 참여했다.

1부에는 투자자를 사로잡는 스피치 스킬(부제목: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라는 주제로 스타강사이자 캐그맨인 권영천의 창업 특강이 진행됐다. 2부에는 수출, 세무, 마케팅, 경영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1:1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다. 각 대학의 입주기업들은 제품 전시회를 개최해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백광현 센터장은 "교수, 기업, 학생이 함께 학으로써 산학협력의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며 "각 대학의 입주 기업들이 정보 공유를 통해 협업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기관이 상생 협력을 통해 창업보육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 중부도시가스 사랑의 연탄나눔 실시

중부도시가스(대표이사 김병표)는 지난 11일, 아산, 세종지역 독거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사랑의 연탄 3000여장을 전달했다.

이번 연탄나눔은 지역의 복지관 등을 통해 겨울을 나는데 반드시 연탄이 필요하신 분들을 추천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회사내 그린나래봉사단에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연탄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탄나눔에 참여한 봉사자는 "주

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이번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나눔, 가스전기 시설점검, 노후된 가스기기 교체 등의 봉사활동 릴레이를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 아산시 공무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

아산시는 지난 8월, 사회적경제과 주최로 노동상담소와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공무원 대상 노동갑수성 향상을 위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소속 일반근로자 노동조합 2곳이 노동조합 결성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내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문제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요구발생에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어 추진된 것으로 금년도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 대상 교육 확대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은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이해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설 및 새 정부 노동정책의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회적경제과는 본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업무담당자의 노사관계 이해부족으로 인한 길등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처원 사회경제과장은 "노동정책의 한 분야로서 비정규직문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공무원 대상 노사갈등 예방과 노동갑수성 향상의 노동관계법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교육 설문지 및 효과 등 분석을 통해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 전문가 용역 거쳐 중앙선 폐선 245km 활용방안 마련

### 선제적 활용 방안 수립으로 복합관광테마 공간으로 탈바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1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선이 되는 중앙선 245km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선 폐선예정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해 지난 9월 해당

시·군 등지자체에 통보했다.

공단은 철도 선형 개량과 노선 변경

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한국산업 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현장실사, 지자체 개발 계획,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공단의 '중앙선 폐선예정부지 활용방안'에 따르면, 중앙선 폐선 부지 전체에 대한 주(主)제마는 '관광'이고, 3개 권역이 각각 '레저&체험원주~단양)', '휴식&관광(영주~군위)', '역사&문화(영

천~경주)'의 부(副)제마로 나뉘어 있다.

공단은 각 테마 별로 트레킹 코스, 기자펜션, 역사·문화 텁방로 등 다양한 활용사업을 소개해 지자체나 민간사업자가 테마에 맞게 폐선 부지를 활용하도록 지역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선 폐선은 중부내륙 지역의 빠어난 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의 이점을 살린 '복합적 관광테마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동을 예상된다.

### "화폐 전문가 되는 길 조폐공사에서 배워요"

#### 조폐공사 교육기부 활발… 올해 46개교 1800여명 참여

'돈 만드는 사람들-진로직업 특강', 'KOMSCO와 함께하는 돈 이야기' 등 한국조폐공사의 특색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초·중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폐공사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6월 교육부가 실시한 우수 프로그램 운영기관 심사에서 '2017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최근에는 직업능력개발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 향후 정부연계 프로그램으로 확보시 활용키로 한 바 있다.

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돈 만드는 사람들-진로직업특강'은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조폐공사의 여러 직업군(화폐

디자이너, 화폐조각가, 보안기술전문가, 위폐감별사, 품질전문가, 인쇄전문가, 주화전문가, 훈장전문가)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조폐공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직접 강의와 체험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생생한 직무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또 'KOMSCO와 함께하는 돈 이야기'는 화폐에 얹힌 재미있는 역사,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현장 체험학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몰랐던 화폐 속 이야기를 배울 수 있다.

조폐공사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태윤 학생(부천 수주중 3)은 "화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게 돼 돈을 새롭게 보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대구성광고 김상협 선생은 "학생들과 함께 '나도 화폐조각가'라는 프로그램을 체험했는데 화폐박물관과 연계해 박물관 견학까지 할 수 있었다"며 "진로 체험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진로직업체험 강사인 조폐공사 기술 연구원 고경철 연구원은 "화폐 전문가는 화폐뿐 아니라 다양한 보안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망 직업인 만큼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폐공사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10 월말 현재 46개교 1800여명이 참여했다. 조폐공사 대전 화폐박물관(유성구 소재)과 경산 화폐본부 두 곳에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부의 꿈길 사이트([www.gonggil.go.kr](http://www.gonggi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병배기자

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내년 1월중 확정된다.

다만, 수확기 농업인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해 11월 중 매입대금의 일부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홍숙 농정유통과장은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미곡 진조벼 출하 시 수분함량 13~15%를 유지하고 마을별 매입일정에 맞춰벼를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042)538-3030

##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한국농어촌공사청양지사

## 2017년 물관리 현장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지사장 유상선)는 지난 10일 청양읍 복지센터에서 기후변화 추세에 따른 가뭄발생 현황과 대처방법 및 내년 영농대비에 중점을 둔 '2017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물관리 현장설명회에는 이석화 군수를 비롯해 이기성 군의회 의장, 김홍열 도의원, 수리시 설감시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건양대와 빨달장애 부모들 뭉쳤다

발달장애인 자녀 가진 부모님들 함께 설립 예비 사회적기업



건양대학교(총장 정연주)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발달장애인인과 함께 그리는 미래'라는 뜻의 빨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과 함께 설립한 예비 사회적기업인 '발그래'가 10일 건양대병원 1층 로비에서 수제비누 및 수제청 판매행사를 가졌다.

지난달 27일 건양대 논산 창의 융합캠퍼스에서 열린 '제12회 도민IT경진대회'에서 빨그래가 만든 수제비누와 수제청이 행사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데 이어 이번에는 건양대병원 로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에 나선 것이다.

지적장애 3급의 16살 자녀를 가진 주부로 발그래 활동을 하며

이날 판매자로도 나선 백승례 씨는 "최근 뉴스를 통해 지적장애를 가진 어른들도 노동착취를 당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을 보면 빨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엄마로서 매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발그래의 목표"라고 밝혔다.

백 씨는 이어 "부모들이 처음 이런 제품을 만들고 판매에 나서니 다보니 시행착오가 많았다. 하지만 건양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지원과 교수님들의 무료 특강 등을 통해 이렇게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빨그래가 더욱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 시민친화 공간 조성 간담회 개최

아산장미마을, 시민친화공간 조성 위해 머리 맞대



아산시는 지난 9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와 함께 12개 관련부서들이 장미마을의 기능전환을 통한 시민친화공간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7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회적경제과 세븐모珉 리모델링과 도로과 도로확포장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공유했다.

이어, 도시재생과에서 장미마을을 포함한 원도심 주변 지역을 사립중심의 도시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여론과 지역주민의 장미마을 기능전환에 대한 요구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도

온양1동 통장협의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과 3여년 간 장미마을의 순찰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측면에서 민·관 합동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세현 부시장은 "장미마을 기능전환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시민 모두의 사업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심히 살펴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각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시는 향후 분기별 정기간 간담회를 개최해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공생하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 세종시 공무원 건강 적신호... 질병휴직자 증가

1

## 지방공무원 질병휴직현황... 지방공무원들의 건강이상 매년 증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공무원 질병휴직현황을 보면, 지방공무원들의 건강이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질병휴직을 낸 공무원은 2012년 1,167명, 2013년 1,231명, 2014년 1,415명, 2015년 1,686명,

2016년 1,896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난 5년간 62%가 늘어났다. 특히 세종시 3명→11명(3.6배), 울산시 13명→40명(3배), 광주시 19명→50명(2.6배), 제주도 21명→53명(2.5배), 충북도 42명→98명(2.3배), 전남도 60명→130명(2.2배), 인천시 54명→113명(2.1배)로 지난 5년간 높은 질병 휴직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병역의무자도 2012년 12명, 2013년 35명, 2014년 95명, 2015년 149명, 2016년 190명으로 매년 증가하여 군대 가기 전 짙은 종의 공무원 선호도가 매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질병휴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업무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과 정비례 한다"고 전하며, "철밥통이라

는 사회적 굴레를 깨어지고 있는 만큼 애근 주말출근 등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연령별 건강진단 전수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건강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

## 하반기 공간정보 워크숍

한국 국토정보공사(LX·구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9~10일 양일에 걸쳐 '17년 하반기 공간정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 지원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사업, 국가지점번호 검증사업을 비롯한 여러 업무의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 기업과 상생 협력 할 수 있는 사업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특히, 관내 17개 지사에서 각 기관별 제안한 '지역 특성화 공간정보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송병배기자



## 아산시,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 충남도의 명실상부한 마을 만들기 선도지역 입증

아산시는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2017년 전국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월랑2리 장수마을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아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18년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충남도의 명실상부한 마을 만들기 선도지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농촌현장포럼은 마을주민, 전문

가, 현장활동가 등이 함께 몇 차례에 걸친 포럼을 통해 마을의 자원과 역량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프로그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주도형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전국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꽃피우다」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산시 월랑2리 장수마을은 이번 대회에서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난개발로 훼손되었던 마을

을 주민들이 화합해 월랑저수지 수변 공간을 가꾸면서 명품 꽃마을로 변모시키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려냈다. 또한, 2016년 희망마을 선행사업, 2018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는 등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을 단계별로 실현해 월랑 2리 장수마을의 자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들을 설명했다. 이번 수상으로 월랑2리 장수마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고, 연말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워크숍에서 또한 차례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 at, 김치·반찬 나눔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情

## at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이웃사랑 나눔 전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 세종충남지역본부(at)는 지난 2일과 10일 김장철을 맞이해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Co-win' 활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일 및 10일에 각각 단무지·반찬 제조업체인 주일미농수산(세종 소재)과 김치 제조업체 비에스푸드

(주)충남 천안 소재)를 방문한 at 직원들은 제조과정에 직접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단순 제조에 그치지 않고 직접 담근 김치, 풋자반 등을 정성스레 포장해 지역 아동보육시설인 '익선원'에 전달함으로써 추운 날씨를 소외된 이웃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날 김치 기부에 동참한 비에스푸드(주) 황진하 대표이사는 "매년 at와 맛있는 김치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지친 일상, 우리 김치 드시고 모두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기복 at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부장은 "이웃을 위해 나누는 음식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올 겨울은 이웃간 온정 나눔으로 모두가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웃음치료 및 시니어 체조 진행

당진시 노인복지관, 신체적 건강증진시키기 위해



당진시 노인복지관 이병하 관장은 지난 9일 어르신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2층 대강당에서 노인복지관 회원 37명을 대상으로 웃음치료 및 시니어 체조를 진행했다.

이날 건강강좌는 웃음치료사 오남영 강사가 진행했으며, 흥겨운 음악과 함께 다양한 게임을 진행해 어느 때보다 밝은 에너지가 좋았다.

당진 노인복지관 이병하 관장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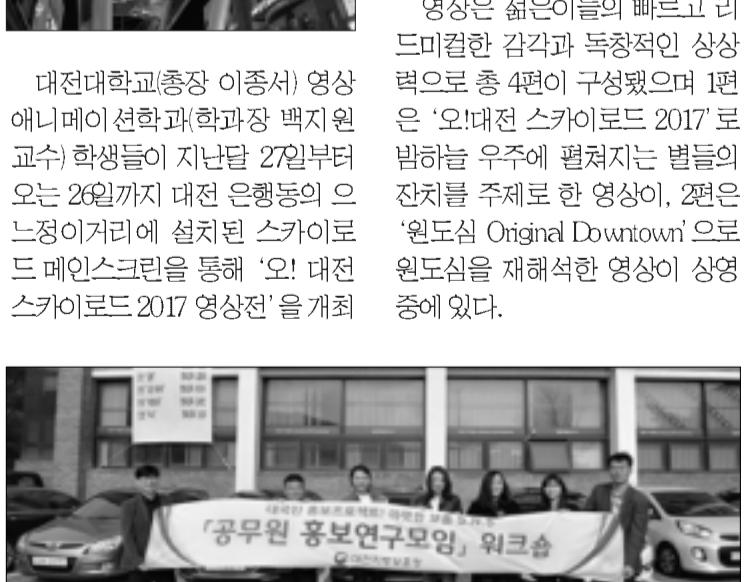
## 대전대 영상애니메이션학과

## '오! 대전 스카이로드 영상전 개최'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원도심 문화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대전대 링크+사업단과 대전마케팅공사 및 TJB가 후원한 이번 영상전은 서계숙 교수를 비롯해 백지원, 신유성 교수들의 지도 아래 7분 분량의 실습적 영상이 제작됐으며, 매일 오후 7시 10분 즈음 스카이로드 스크린을 통해 상영 중에 있다.

영상은 젊은 이들의 빠르고 리듬미ful한 감각과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총 4편이 구성됐으며 1편은 '오! 대전 스카이로드 2017'로 밤하늘 우주에 펼쳐지는 별들의 진치를 주제로 한 영상이, 2편은 '원도심 Original Downtown'으로 원도심을 재해석한 영상이 상영 중에 있다.



대전보훈청, 흥보연구모임 워크숍 실시 대전보훈청은 지난 10일 민·관 합동 공무원 연구모임인 '대국민 흥보프로젝트' 따뜻한 보훈 SNS(Supreme News Service) 워크숍을 실시했다.

## 백성 교육 향한 고종의 열망, 120년 만에 움트다

## '대한제국과 교육·배재학당에 펼쳐진 고종의 꿈' 서근대 고등교육 흐시다뤄



'재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도 포함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종은 1897년 부국강병과 근대국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등극했다. '교육은 개화의 근본이다.'(고종실록 권 33) 라며 교육 열망을 비친 고종은 '교육의 성취를 보지 못하니 마음이 적막하여 봄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고종실록 권 44)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주요 전시물은 당시 고종의 근대 고등교육 열망을 담은 역사적 소장물이 주를 이뤘다. 배재학당과 서명석 배재중 교장을 비롯해 범인 이사·감사 등 120여명이 참석해 기획전을 쭉펴졌다.

특히 전시는 120년 전 고종이

부국강병을 꿈꾸며 솔은 교육열에 집중했다. 우리나라 최초 근대 교육기관인 배재학당(培材學堂)에서 고종의 교육 구상이 구현된 점도 다뤘다. 전시는 배재학당이 중등교육 뿐 아니라 '배재학당'이 종등교육

이정복기자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 다목적 순찰선 국립공원 취항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 사무소(소장 양해승)가 12일 신진항 관공선 부두에서 다목적 순찰선 국립공원 201호 취항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지정 39년 만에 최초의 순찰선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해양생태계 현장을 관리할 선박 부재의 아쉬움을 털어내게 됐다. 국립공원 201호는 총 톤수 22톤으로 길이 18m, 너비 4m, 최대 속력 20노트이며, 국립공원 현장에 배치되어 자연자원조사 및 청손지 복원, 유·무인도 해상 순찰, 불법행위 단속 등을 수행하며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인명구조 및 방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해안형 국립공원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이 다목적 순찰선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변산반도까지 해상·해안 국립공원 모두 선박을 운영함에 따라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국립공원 관리를 발전할 단초를 마련했다.

노회동 해양자원과장은 “태안해안국립공원 다목적 순찰선 취항을 계기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해양 보호지역의 리더로서 위상이 한 단계 발전하여 해양 생태계 보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당진소방서, 소방전술훈련 평가 실시** 당진소방서(서장 방상천)는 11월 10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재난현장대응 능력 강화 및 대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



**예산소방서, 5분의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지난 10일 예산상설시장 등 관내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소방공무원, 응용소방대원,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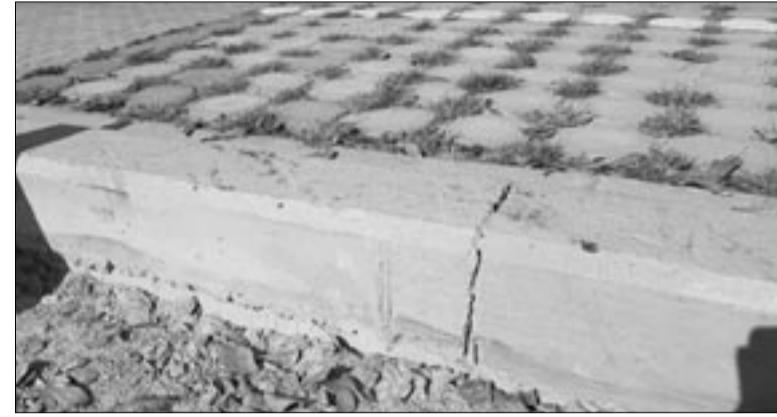
**대전보훈청, 우리고장 현충시설 알리미 발대식 개최** 대전지방보훈청은 지난 9일 대전보훈청 1층 로비에서 대전 관내 초·중·고등학생 26명을 ‘우리고장 현충시설 알리미’로 위촉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청양소방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지난 7일 청양읍 학당리에 위치한 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 홍성군 홍주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 엄망

110억 투입... 주차장 측구 깨지고 파이고, 담당공무원 취재자료 열람도 꺼려



도 불쾌감은 물론 공사개요 열람조차 꺼리고 텁장이 자리에 앉아며 30분을 기다리라고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취재진은 30분을 기다렸지만, 텁장을 만나지 못하고 2시간이 지난 후 텁장과 통화해 공영주차장조성 사업 추진현황만 받았다.

받은 자료에는 텁세 110억을 투입해 조성중인 주차장 설치의 목적이 빠져 있어 무슨 이유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제보자 A씨는 주차장 공사가 엄망인데도 준공해 준 것은 부실공사를 눈감아 준 것 같다고 말해 시공사와 유착 의심까지 제기했다.

홍성군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와 자료 미흡으로 미뤄볼 때 시공업체와의 유착관계 의혹이 커질 전망

이다. 특히 텁세로 조성한 주차장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위탁해 주차요금을 받는 홍성군의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높다.

홍성군이 2016년 착공해 2019년까지 홍성을 오관리 207번, 437~7번에 면적 8.208m<sup>2</sup>에 110억을 투입해 95대의 주차 공간(91대장애인 4대의 공시를 일부 마치고 지난 8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다.

2차로 홍성축협 뒤 주택을 매입(6월 1.537m<sup>2</sup>)해 대형버스 공영주차장과 홍주성 주변 주차장 도로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무상한 소문과 시공사와 유착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 홍성군이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김정한기자

## 석면 공포 속, 충남도-청양군 책임 떠넘기기와 늑장행정 ‘비난’

### 석면함유 토석 농지 객토, 주민 건강 우려

농지에 석면 성분이 함유된 토석이 객토된 것으로 밝혀져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행정기관이 인일한 태도로 일관해 지탄을 받고 있다.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청양군 비봉면 00리 000번지 총 면적 16,598m<sup>2</sup> 중 14,415m<sup>2</sup>에 개발행위를 받아 토석채취질투불량 97,918m<sup>3</sup> 공사를 진행했다.

이 중 약 6만m<sup>3</sup>는 인근 공사현장으로 반출됐으며, 올해 초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대량의 토석이 지역 곳곳의 농지에 객토됐다.

문제는 지난 6월 경 다른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양군이 해당 사업자의 석면 함유 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석에서 석면 성

분이 검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관계 행정기관인 충남도와 청양군이 ‘관할’과 ‘권한’ 운운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충남도와 청양군 관계자는 모두 ‘석면의 피해발생 기준은 비산여부로 석면이 함유된 흙이 객토됐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양질의 흙을 덮어 마무리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식의 석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급 백암불질’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고 있는 석면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태도라는 것이

다. 또한 청양군 관계자는 농지법의 완화로 인해 단속이나 조치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솔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개량 행위’는 국토계획법상의 일반적인 토지형질변경과는 다른 형질변경으로 요건과 범위는 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농지 개량의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법 시행령 제3의 2 제2호와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명시된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4조의 2) 관련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폐자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량농지 조성에 사용하는 흙은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해 최소한 기준보다 더 작을 생유에 적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석면 성분이 함유된 부적합한 대량의 토석이 농지에 객토된 긴박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팔짱을 끼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석면 성분이 함유된 토사가 농지에 들어간 것이 시설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유해성 검사 등을 실시해 ‘위험이 없다’라던가 ‘원상 복구하겠다’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속 시원한 대답이라도 먼저 해줘야 한다”며 관계 당국의 늑장행정을 질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아산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 안전관리 당부

###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 증가함 따라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최근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연료비 절감을 위해 농촌 지역을 중

으며, 이를 개선하려면 ▲보일러 주변에 기연성 물질 2m 이상 이격 설치 ▲연료투입구 부근에 소화기 비치 ▲연통에 깨끼 등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등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재룡 화재대책과장은 “화목보일러는 농촌, 산간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해 연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안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로 큰 화재를 부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초기소화를 위한 소화기 비치와 신속한 119신고, 초기소화 실패 시 빠른 대피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랑주기자

**DT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청원구 청원대로 28-10 대전정보원 7층

www.daejeontoday.com

### 공주보호관찰소 “소외계층”

####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공주보호관찰소(소장: 우종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사회봉사를 토대로 청양군내 거동불편 독거노인과 정신장애인 가정을 찾아 도배작업과 집 주변을 청소하는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관내 소외계층 복지를 담당하는 청양군청 주민복지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금년 하반기 들어 6회차 진행되는 소외계층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이다.

도움을 받은 청양군 청수리 ○○씨 가정은 정신지체 장애 가정으로 청양군 복지 담당자는 “대상자 집 주변의 방치된 생활쓰레기가 너무 많아 고심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주어 너무나 좋다”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사회봉사대상자 또한 “힘들었지만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용도지역(지구)(변경) 조서

도면조사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대전 구봉지구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757번지 일원	110,684	증144,373	254,957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조사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대전 구봉지구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757번지 일원	110,684	증144,373	254,957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활 계	110,684	증144,373	254,957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3,771	증123,748	113,519	73.3
농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6,913	증9,455	41,038	35.7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

가. 시행자: 대전광역시(변경없음)

나. 시행방식: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 ●정정●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식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3일 오전 11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식'에 참석.

## 간부회의



김석환 홍성군수는 13일 오전 8시 40분 군청 회의실에서 실시되는 간부회의에 참석.

## 오송~청주도로 확장구간 내

## 강내보도육교 이전·설치 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오송~청주도로 확장구간' 구간의 '강내보도육교'를 강내 지구대 주변으로 이전·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지난 10일에 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하는 '강내보도육교'는 왕복 8차로로 확장되는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물로써,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장 42m, 보도폭 4m 규모의 아치형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당초 기존의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인근 월곡초등학교 및 미호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요구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전·설치하게 됐다.

특히, '강내보도육교'는 일반 육교와 달리 도시미관을 고려해 상부에 아치형 트러스 형식을 적용하고, 거더 높이(h=1.1m)를 최소화하였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설물을 도입하여 특색 있게 설계한 것이다.

김용석 기반시설국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강내보도육교'는 보행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디자인에 집중하여 아치형으로 계획했다"면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 충남반도체 산업 현황과 전망정책지도 밝간

충남연구원이 지난 10일 '충남 반도체 산업 현황과 전망'을 담은 정책지도를 발간했다.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김혜정·임병철 전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2015년도 기준 충남 반도체 산업을 보면, 사업체수는 156개소로 전국 2위(1위 경기), 종사자수는 10,204명으로 전국 3위(1위 경기, 2위 충북) 규모이며, 매출액은 2010년 5조 원에서 2015년 8조5천억 원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반도체 관련 사업체는 주로 천안·아산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반도체 산업 상위 5개 기업의 총 생산액 중 1위인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한 마디로 충남 소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청 관계로 얹혀있기 때문에, 도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쇠퇴는 삼성전자의 영향력에 달려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공정 중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전(前)공정은 주로 경기에 입지해 있고, 충남은 삼성전자 은양사업장을 중심으로 후(後)공정(칩)을 기공하여 원성 품으로 제작하는 패키징 공정이 입지 해 있다.

이에 연구진은 "최근 차세대 전자 패키징 시장 확대 분위기로 볼 때, 패키징 중심의 산업집적지인 충남이 향후 패키징 기술 연구·생산 중심지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정한 기자

## 2017 유형별 자율관리업 우수 공동체 선정 대회

## 서산 웅도·보령 삽시도 '전국 1위'

1980~1990년대 '소답구지 어업 활동'으로 유명했던 충남 서해의 작은 어촌마을 서산 웅도가 전국 1위 어업공동체에 올라섰다.

또 보령 삽시도도 웅도와 함께 전국 최고 어업공동체로 이를 올렸다.

도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17 유형별 자율관리업 우수 공동체 선정 대회'에서 서산 웅도 자율관리업공동체(위원장 김종운)와 삽시도자율관리업공동체(위원장 김상배)가 각각 전국 최우수 공동체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자율관리업은 어업인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해 자체 규약에 따라 어장과 자원 관리, 경영 개선, 어업질서 유지 등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 우수 공동체 빌글을 위해 실시한 이번 대회는 사전 및 현장 심사를 통과한 공동체들이 어선어업, 양식·복합어업, 마을어업, 내수면어업 등 4개 분야에 걸쳐 발표를 갖고 최우수와 우수 공동체를 가렸다.

마을어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산 웅도는 가로림만에 위치, 하루 두 번씩 물길이 열리면 갯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특이한 지형을 가진 작은 섬마을이다.

이 섬은 과거 넓은 갯벌에서의 소답구지 어업 활동으로 이를



펼치기도 했으나, 자원 낙획으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 빈약한 공동체 의식 등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웅도는 그러나 자율관리업공동체를 조직한 뒤, 바지락·가무락 등 패류에 대한 △캐포 크기 제한 설정 △자체 조업일수 기간 설정 및 준수 △생산량 조절 △어장 휴식년제 등을 실시했다.

황폐화된 어장 복원을 위해서는 굽 양식용 투석, 바지락 양식장 저질 개선,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구제 활동 등을 진행하고, 어장 폐어 구수거와 해안가 청소도 펼쳐왔다.

이와 함께 자원 조성 사업으로는 가무락 종래장 시범 사업, 바지락·가무락 종래 방류를 실시했으며, 공동생 산 계통출하와 판매대금 공동분배, 생산물 직판, 관광객

대상 체험어장 운영 등으로 주민 수익을 확대하며 이번 영예를 안았다.

양식·복합어업 분야 1위를 차지한 삽시도 역시 자율관리업공동체 조직·운영을 통해 자원 관리와 어장환경 조성, 수익 확대 등을 성공적으로 일궈온 마을이다.

삽시도는 바지락과 해삼의 채포·체장 제한 크기를 설정한 뒤, 규격이 미달될 경우 다시 방류했으며, 바지락과 전복 30일, 해삼은 60일로 조업 일수를 정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생산량을 정하고, 폐류어장 4곳에 대한 어장 휴식년제를 돌아가면서 실시했다.

삽시도는 이밖에 각종 종래 살포와 더불어 해삼 어장 환경 조성을 위한 투석 및 인공어초 설치 등을 추진했으며, 해적생물 구제와



## 세종우체국 신청사 업무개시 안내

## 우편·예금·보험 서비스 제공… 주민들 편의 증진 기대

세종우체국은 조치원읍에서 보림동 신청사 시청대로 180, 세종시 청 옆으로 이전해 13일부터 우편·택배·예금·보험 등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종시 전체의 우정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조치원에 있는 기존 세종우체국의 자리에는 우체국 명칭을 조치원우체국으로 변경, 집배업무를

포함한 우정서비스를 계속한다.

세종우체국 신청사는 그간 노후 시설과 부족한 주차시설로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신도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1만4146㎡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난 달 완공됐다.

세종시 신도심 주민들이 등기

· 소포 우편물을 찾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세종물류센터(연기면 세종리 67-294)를 방문했지만 이제는 편리한 환경의 신청사에서 서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준 세종우체국 국장은 "보다 나은 우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우체국,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명품우체국을 만들겠으니 시민들께서는 격려와 애정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국정감사 자료 도민에게 낱낱이 알린다

## 충남도, 도민 알권리 총족·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

충남도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수감하면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13일부터 충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한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 공개는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 대상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11건(농해수위 127건, 행안위 11건)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감사자료는 업무현황자료 2건,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5건, 위원요구자료 271건 등 총 278건에 이른다.

특히 위원요구자료는 비정규직

정책, 갈등처리현황, 충남인권도정 실천내용 등 도정 주요 현안사항이 포함돼 있다.

도는 위원요구자료 409건(농해수위 367건, 행안위 42건) 가운데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는 138건(농해수위 127건, 행안위 11건)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열람하면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 접속한 후 통합검색창에 '국정감사'를 검색하면 된다.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자료 공개

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도민 권리 총족을 통한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됐다.

도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혁신을 중점 추진하면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도정을 운영하고 있다.

김석필 기획관은 "국회 국정감사 제출한 자료는 도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권자인 도민 누구나 열람할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받고 투명한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한 기자

어장·해안가 청소도 정기적으로 펼쳤다.

웅도와 삽시도는 이번 수상으로 2000만 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지난해에도 태안 곰섬이 전국 1위에 오르며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지난 2015년에는 안면도 대야도 공동체가 전국 2위에 오른 바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 또 다시 전국 최고 성적을 거둔 것은 도내 어업공동체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도내 128개 자율관리업공동체가 골고루 성과를 낼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한 기자

## 규제개혁 우수사례 8건 선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8일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보고 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 사례는 '지역 집중유지 업종변경으로 초소형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가 선정됐다.

지역별 집중유지업종에 한하여 국가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세종시의 경우 신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전기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관련 고시 업종 변경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여, 초소형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에 성공하고 이를 통해 116억원의 투자 및 75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이어 우수 사례로는 '과도한 허가제한 규정 완화로 민간투자 유치'와 '소정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중구제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가 선정됐으며, 장려는 '방문 없는 자동차 온라인 등록' 등 5건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이에 따라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관련 고시 업종 변경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여, 초소형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에 성공하고 이를 통해 116억원의 투자 및 75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집중유지업종에 한하여 국가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세종시의 경우 신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전기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집중유지업종에 한하여 국가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세종시의 경우 신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전기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집중유지업종에 한하여 국가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세종시의 경우 신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전기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집중유지업종에 한하여 국가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세종시의 경우 신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전기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집중유지업종에 한하여 국가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세종시의 경우 신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전기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집중유지업종에 한하여 국가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세종시의 경우 신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전기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집중유지업종에 한하여 국가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세종시의 경우 신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전기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집중유지업종에 한하여 국가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세종시의 경우 신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전기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집중유지업종에 한하여 국가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세종시의 경우 신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전기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집중유지업종에 한하여 국가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세종시의 경우 신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전기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집중유지업종에 한하여 국가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세종시의 경우 신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전기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김정한 기자

## 홍성군 직장인 비만교실 운영

## 야간비만관리프로그램 '일도 몸도 S클래스' 수료식

홍성군

## 동정

## 간담회



김홍장 당진시장  
=13일 오전 10시  
30분 당진시청 소  
회의실에서 열리  
는 제4기 당진시  
명예감사관 위촉  
식 및 간담회에 참석.

## 관계자들 격려



한상기 태안군수  
=13일 오전 10시  
이원면 이원방조  
제 일원에서 열리  
는 '2017 하반기  
숨은 자원 찾기'  
행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  
려.

## 선진기술교육



이석화 청양군수  
=13일 오전 11시  
충남도립대 학교  
경찰행정학과 특  
강을 실시한 후, 오  
후 2시 청양군예회  
관에서 열리는 시설및전문건설업체  
청렴 및 선진기술교육에 참석.

## 청양군 4대 폭력예방통합교육 실시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10일 청  
양군예회관에서 이석화 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기정폭력·성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직장에서의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고,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  
들고자 마련됐다.

이날 비전 기획상담복지센터장 김명  
숙 강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젠더 폭  
력 이해와 일상생활에서의 예방과 실  
천방안에 대해 강의했으며,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및 성평등 인식개선을 통  
해 서로 존중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간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으로 성희롱 없는 건강한 일터 만들기와  
더불어 폭력 없는 안전한 청양 만들기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  
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온양3동 김장나눔 봉사활동 실시

아산시 온양3동 남·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회장 김성만·부녀회장 장복연)  
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행복센  
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  
동을 실시했다.

온양3동 새마을 회원 30여명과 이미  
트 아산점 주부봉사단 10여명은 9일 새  
벽 6시부터 배추 40포기로 김장김치를  
담가 10일 오전 10시 김장 김치를 라면  
과 함께 지역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110여 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10월 17일 새마  
을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과 이미트 아산  
점에서 1백만 원 상당의 김장 재료, 온양  
농협에서 50만원과 박스후원으로 추진  
됐다.

김성만·장복연 새마을협의회장은  
"지역 사회에서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에  
게 작은 손길을 내밀어 그들의 겨울나기  
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  
다"고 전했다.

김형관 동장은 "매년 지속적으로 이웃  
을 위해 바자회 및 김장 나눔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새마을협의  
회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쌀쌀한 날씨에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이  
미트 아산점 주부봉사단과 온양농협에  
도 감사드린다. 작은 정성이 모이면 더욱  
행복한 지역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저출산 문제 해결 앞장선다"

## 당진시, 지난 10일 민·관 거버넌스 형태 저출산 대응단 출범



당진시가 지난 10일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저출산 대응단을 구  
성했다고 밝혔다.

심병섭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15개 부서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시의 저출산 대응단은 저출산 극복  
4대 해결과제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주거팀 ▲임신·출산팀  
▲보육 교육 및 일·가정 양립팀 ▲  
출산장려 사회환경조성팀으로 구  
성돼 있다.

청년 일자리·주거팀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시는 저출산을 결혼 이  
후 출산과 양육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청  
년세대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해 시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  
다.

또한 출산장려 사회환경조성팀  
에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과  
교육계 및 종교계 지도자 등 민간

단체도 참여시켜 민·관협의 과정  
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행 가  
능성이 높은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응단의 본격적인 활동은 2018

년부터 이뤄질 예정으로, 향후 시는  
대응단의 정례회의를 통해 시민 욕  
구를 반영한 정책개발은 물론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  
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  
생 통계에 따르면 당진시의 2016년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1.76  
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 11번째, 충  
남도내 첫 번째로 비교적 높은 수  
준을 기록했지만 2015년 합계 출산  
율보다는 9.23% 감소했다.

한국 고용정보원의 연구보고서  
'한국의 지방 소멸 2'에 따르면 합  
계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당진시 조  
차도 소멸 주의 도시로 분류된 만  
큼 지방 소도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요구되  
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목표사업 연내 마무리' 점검

### 청양군, 2017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 열려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10일 상황실에서 이석화 군수를 비  
롯한 각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  
적 보고회를 갖고,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올해 세운 목표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주요 실적으로 ▲2년 연속 공약추진 우  
수기관 선정으로 군민신뢰 제고 ▲청양농업 대 도약의 해 선포를  
통한 부자농촌 만들기 가속화 ▲5년 연속 인구증가를 위한 프로젝  
트 추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관광개발·공공기관 유치·산  
업단지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복지사각지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실현 ▲대 토론회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  
린 군정 구현 등이 보고됐다.

군은 인구증가·부자농촌 2020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국 2배로 나  
타나는 등 군정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또한 체육 대회 개최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스포  
츠미케팅도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스포츠마케팅 도시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이 뿐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30억 조성 등 전국 최고의 맞  
춤형 복지와 200억 장학기금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 서부  
내륙고속도로·보령~울진 간 고속화도로·충청산악문화철도  
청양 통과 건설 추진, 도시가스 공급 확정 등 지속 발전이 가능한  
희망찬 군으로 거듭나고 있다.

군은 또한 이날 보고회에서 내년도 군정 중점 운영방향을 밝혔  
다. 내년도 군은 민선 6기 공약사항을 안정적으로 달성해 민선 5·  
6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군민신뢰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지속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과 귀농귀촌, 농업리더 육성, 소득 확대 보급과  
가공 산업 육성 등 인구증가·부자농촌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며, ▲칠갑신을 중심으로 한 3대 권역 관광개발과 문화예술  
진흥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내실 있는 스포츠  
미케팅 추진 ▲최상의 교육복지 환경조성 ▲현장 중심 소통 행정  
구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이석화 군수는 "연 초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 중 미  
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부서장 책임 하에 차질 없  
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  
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태안군 100%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 특별교부세 8억 원 확보돼 '내년까지 전마을 시스템 구축'으로

전달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관내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를 시작했으며, 올해 현  
재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171개 대  
상 마을 중 101개 마을에 마을무선  
방송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상태다.  
군은 확보된 국비로 올해 28개  
마을에 시스템을 추가 설치해 설치  
율을 54%에서 7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도비를 확보하고 자체 군  
비를 추가 투입해 내년 초까지 설치  
율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마을무선방송 시스템을 도입하  
면 이장 등 방송 주체가 마을회관  
까지 가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마을방송을 할 수  
있어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군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상기 군수는 "태안군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국  
비 확보를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태안=김정현기자

## 해나루쌀·농특산물 대축제 성료

### 당진시, 관광객에게 인기·해나루쌀 현장 구매자도 줄어

쌀 가공식품을 나눠 줘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특히 직거래 장터를 통해 당일  
현장에서 판매된 해나루쌀이 약  
1000kg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  
다.

축제에는 올해 축제 성공 요인  
으로 지역 농특산물이 몸에 좋다는  
식의 추상적인 마케팅에서 벗어나  
해나루쌀과 지역 농특산물을 관광  
객들이 직접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 위주로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한 점을 꼽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  
물을 소개하고 향토 음식을 맛보는  
기회였다.



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  
는 계기가 됐다"며 "이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 지역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축제를 생산자와 소

비자가 만나는 직거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태안군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만든다

### 내년 1월부터 시행...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 홍보 나서



라 이에 발맞춰 내년부터 공중화장  
실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군은 올해 말까지 관내 77  
개 공중화장실 내 대변기 칸에 비  
쳐진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  
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할 예  
정이다.

기존에는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이  
있어 미관상 문제와 함께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비위생적이라는 지  
적이 있어왔으며, 최근 화장지의 질  
이 향상되고 화장실 이용 문화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휴지통을 철거  
하게 됐다고 군은 밝혔다.

다만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입구 또는 세면대 부  
근에 별도의 휴지통을 비치해 이용  
자들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화장실 이용자와

인권 보호를 위해 다른 성별의 작  
업자가 청소 등의 용무로 출입할  
경우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화장실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  
키로 하는 등 선진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휴지는 변기에 버리기',  
'기타 이물질을 변기에 넣지 말기'  
등의 캠페인을 전개키로 하는 한편,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화장실에 부  
착하고 뚜껑이 있는 스테인리스 휴  
지통을 일괄 구입하는 등 위생적인  
화장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다.

군 관계자는 "대변기 칸 내 휴지  
통을 없애는 것은 청결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시행 초  
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전  
국적으로 시행되는 시책이니만큼  
이용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관광휴양도시 태안군의 청결 이미  
지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  
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현기자



## 아산시 농촌일손돕기 펼쳐

### 환경보전과, 봉사활동·소통하는 시간 가져

아산시 환경보전과(과장 성만제)가 지난 9일, '1부서 1촌' 자매결  
연 마을인 도고면 시장1리(이장 남홍연)를 방문해 기울월 일손 돋  
기를 실시했다.

성만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보전과장을 포함해 직원 15명은 구슬땀을 흘리며  
수확이 늦어져 과밀하게 자란 쭈과를솎아주는 등 봉사활동을 실  
시하고, 마을 주민의 고충과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마  
을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홍연 시장은 "이장은 '매년 봄철, 기울월 일손 돋기마다 힘이 되  
어주는 환경보전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성만제 환경보전과장은 "농촌일손돕기 기념으로 실천해 주  
민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 부여군 3년 연속 징수목표액 달성 '총력'

## 대학수능시험 종합지원대책 마련

계룡시, 교통소통 등 최대한의 행정편의 제공키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록)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수험생 편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시는 수능시험 당일 공무원 출근시간을 수험생 등교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를 피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는 한편 금융기관, 각 학교,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에도 출근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노점상 일제단속, 비상 수송차량 지원 등 수험생의 안전한 등교를 돋고 편안한 가운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수험당일 등기평가 시간대인 제3교시 영어영역 시간(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에는 등기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동차 경적 등 소음자제와 학교주변 건설공사현장 일시 중지를 적극 계도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사회단체,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수능당일 시험장 안내, 음료제공 등의 편의대책과 격려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수능이후 시험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자칫 일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탈출 콘서트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해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험장을 찾는 수험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우리지역 수험생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그동안 쌓아온 열정을 마음껏 쏟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에서 치러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계룡 및 용남고등학교 27개 시험실에서 수험생 632명이 응시한다.



## 서천군 훈훈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10일 서천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근준)과 (사)대한한돈협회 서천군지부(지부장 이정균)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연탄 1만장(600만원 상당), 한돈 200kg 2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날 전달 받은 연탄과 한돈은 서천군 내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근준 조합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추운 겨울을 훌로 나서야 되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또 다른 기획을 한 (사)대한한돈협회 이정균 서천군지부장은 "우리 한돈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에너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활동으로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일 익명의 기부자가 서천군 사회복지실을 방문하여 소년소녀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선뜻 1천만원을 기탁하였다. 이날 전달된 기부액은 충남사랑의열매 계좌를 통해 기부자의 뜻에 따라 쓰일 예정이다.

서천=김태선기자

##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나서

### 계룡시, 전용봉투에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록)는 김장철을 맞아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배출요령 등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다량으로 발생되는 배추, 무 등 채소류 쓰레기는 잘게 썰어 부피를 줄이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며, 지푸라기, 흙, 노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로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20ℓ에 담아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 전용봉투가 없을 경우 일반 투명봉투(20ℓ)에 납부필증을 부착·배출도 가능하며, 전용봉투에 김장쓰레기 이외의 다른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경우 수거하지 않으므로 세심한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는 지정된 봉투 판매소에서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20ℓ 구입 시 무상 지급된다.

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을 공동주택 단지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김장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및 원활한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장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환경 위생과(042-840-2475)로 문의하면 된다.

## 제2차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열어 징수실적 비교 분석·징수기업 공유

부여군수 이용우는 징수실적 분석 및 2018년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제1차 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제2차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었다.

재무과장 주재 하에 16개 읍면 부읍·면장이 참석해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2개월간 읍·면별 징수 실적 비교 분석하고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을 산정, 징수기법을 공유했다.

읍면에서는 개인별 30만원 이하 소액체납액 남부 독려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율 확장에 온 힘을 기울여 2018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군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금여 및 각종 채권 압류, 체납법



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행사 업체한, 입류재산 적극 공매 추진 등으로 읍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의 거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11월 중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요청하고, 관의 영치팀을 집중

운영하여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 공도 확대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분위기를 높여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기분 세목 납기내 납부자 추첨을 통한 인센티브제공을 기준 3백만원에서 2018년에는 금액을 확대하는 등 성실납세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우대 정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군은 2차 징수대책 보고회를 계기로 3년 연속 우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여=이정복기자

동 정

### 천안시기업인대회



구본영 천안시장= 13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들에 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오후 5시 천안시기업인대회에서 열리는 천안시기업인대회에 참석.

### 협약식



노박래 서천군수= 13일 오전 8시 3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추진 협약식에 참석

### 개소식



이용우 부여군수= 13일 오후 2시 장암주민자치센터 준공식 및 개소식에 참석

### 기업인대회 행사



전종환 천안시의회장= 13일 오후 5시 천안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17 천안시기업인대회 행사에 참석.

## 천안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안전관리 특별단속 실시

### 안전장치 설치여부와 줄음·음주운전 등 현장실태 점검

천안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시내·전세버스의 안전관리 강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30일까지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3개 사내 시내버스 업체와 45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를 직접 방문

하거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점검대상 차량을 접견시키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점검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이용승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용망치 설치여부 ▲소화기·충압기준 미달 여부 ▲재생타이어 사용 등으로 차고지를 직접 방문

용여부 ▲좌석 안전띠 정상작동 여부를 비롯해 ▲운전기사 휴게시간 보장 ▲적정배차 편성여부 등 휴게 실태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한다.

현장에서 단속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를 통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관련 규정 준수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남걸 교통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운수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안전지도·계도를 강화하고 각종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현재 전세버스운송 사업자는 45여개 업체이며 차량등록대수는 1182대다.

천안=구본성기자

## 서천군 맘(Mom) 편한 데이(Day) 추진

### 안전장치 설치여부와 줄음·음주운전 등 현장실태 점검

천안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시내·전세버스의 안전관리 강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30일까지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3개 사내 시내버스 업체와 45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를 직접 방문

하거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점검대상 차량을 접견시키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점검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이용승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용망치 설치여부 ▲소화기·충압기준 미달 여부 ▲재생타이어 사용 등으로 차고지를 직접 방문

용여부 ▲좌석 안전띠 정상작동 여부를 비롯해 ▲운전기사 휴게시간 보장 ▲적정배차 편성여부 등 휴게 실태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한다.

현장에서 단속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를 통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관련 규정 준수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남걸 교통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운수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안전지도·계도를 강화하고 각종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현재 전세버스운송 사업자는 45여개 업체이며 차량등록대수는 1182대다.

천안=구본성기자

## 작가 박범신과 깊어가는 가을을 '소풍' 하다

### 18일 제5회 인문학 탐방·'박범신 문학의 끝으로 소풍가는 날' 열려



수목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 논산의 아름다운 곳곳을 '작가와

에너지 재충전의 시간이 됐다.

군은 그동안 저출산 극복에 대해 출산장려금 확대 등 출산에 대한 지원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여러 번 추진되었으나 육아하는 엄마들만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처음이다.

김미정 인구정책팀장은 "저출산 극복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인식 개선을 통해 함께하는 육아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계청(2016년) 자료에 따르면 서천군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 구성비는 전국 6위지만, 합계출산율은

114명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12명, 충남 135명보다 낮다.

서천=김태선기자

바롭길, 박범신작가 집필관 도착코스로 보물찾기,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져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집필관에서는 깊어가는 가을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공연과 작가와의 토크콘서트, 삼행시 백일장, 작가 도서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행사 참가는 무료 개인 도시락 참여이며 원활한 운행을 위해 17일까지 이메일(horae2395@kci.or.kr) 또는 팩스(041-732-2394)로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문화원 홈페이지(<http://www.kcc.or.kr/hansando>) 또는 논산문화원(041-732-2395, 746-69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김태선기자

## 한국전기공사협회 연무읍 연탄기증

### 연탄3700장 나눔행사·어려운 이웃 위한 온정 손길

한국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 회회장 신철, 연무읍주민자치위원회는 9일 연무읍사무소를 방문,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푸드뱅크를 통해 '사랑의 연탄' 3700장을 기탁했다.

이날 신철 회장 및 직원 1





## 오늘의 하이라이트

## ▲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 30분)



어막고 깅때들이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린다. 달례는 태성의 성화에 술집을 나서며 어디선가 그를 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깅때들이 자신이 일하는 곳까지 알아냈으니 머물고 있는 집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린 달례는 짐을 싸서 도망친다.

## ▲ 20세기 소년소녀 (MBC 오후 10시 00분)



달님은 USB를 훔치려던 세나를 붙잡고 세나가 보는 앞에서 USB를 열어보지만 빙 풀려만 나와 당황한다. 병수는 세나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달님에게 진짜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선호는 신제품 성공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재우를 향한 달님의 마음을 알고 쓸쓸해 한다.

## ▲ 꽃피어라 달순아 (KBS2 오전 9시 00분)

태성(임호아) 자리 잡은 술집에 몸을 숨긴 달례(유지연)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태성의 입을 틀

## 케이블 명화

## ▲ 아수라 2016 (OCN 오후 10시 20분)

김성수 감독의 범죄액션 장르 귀환

스크린에 생생하게 살아난 물고 물리는 악인들의 지목도 <아수라> 지금 같은 세상,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악인들의 전쟁 <아수라>

강력계 형사 한도경(정우성)은 이권과 성공을 위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악역시장 박성배(황정민)의 뒷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악에 계속 노출되는 사이,

맡기 암 환자인 아내의 병원비를 광계로 돈 되는 건 뭐든 하는 악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한도경.

그의 악점을 쥔 둑종 검사 김차인(곽도원)과 검찰수사관 도장학(정만석)은 그를 협박하고 이용해 박성배의 비리와 범죄 혐의를 캐려 한다.

각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한도경의 목을 짓 누르는 검찰과 박성배. 그 사이 태풍의 눈처럼 되어 버린 한도경은 자신을 친형처럼 따르는 후배 형사 문선모(주지훈)를

박성배의 수하로 들어보내고, 살아남기 위해 혈안이 된 나쁜 놈들 사이에서 서로 물지 않으면 물리는 지목도가 펼쳐진다.

박성배의 수하로 들어보내고, 살아남기 위해 혈안이 된 나쁜 놈들 사이에서 서로 물지 않으면 물리는 지목도가 펼쳐진다.



## ▲ 트루라이즈 (채널CGV 오후 7시 40분)

## 케이블 &amp; 위성 방송

▶ YTN 020398-8000 ▶ 스키리아이프 1588-3200

▶ 한글케이블 TV 방송 협회 060-398-3355

## 영화·오락

## 스포츠·레저

## 뉴스·다큐

## 음악·애니

◆ OCN  
6:00 피리미드  
7:40 성범죄수사대 SVU 시즌8  
11:00 블랙  
12:30 미션  
15:50 용의자  
18:50 테이큰3  
21:00 멜로홀릭  
22:20 아수라(2016)

◆ 채널 CGV  
3:50 토요: 다큐월드  
5:50 노 굿디드  
7:30 스파이  
9:50 치어너리문  
12:20 신데렐라  
14:40 글로벌 10년  
17:10 타이탄  
19:20 트루 라이즈  
22:30 메이즈 러너: 스코트 트라  
이얼

◆ Mnet  
6:3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4  
7:50 M COUNTDOWN  
9:30 질보주 JBJ  
10:30 프로젝트 S: 악마의 재능  
기부  
11:40 fromis\_의 방  
12:40 WANNA ONE GO: ZERO  
BASE  
14:00 역대 MAMA 베스트 퍼포  
먼스  
15:20 Stray Kids  
16:20 M COUNTDOWN  
18:00 Daily Music Talk (SMS)  
19:00 COMEBACK WANNA  
ONE : Nothing Without You  
20:10 COMEBACK WANNA  
ONE : Nothing Without You  
21:30 더 마스터 - 음악의 공존

◆ MBC 스포츠플러스  
10:00 2014 소치동계올림픽  
12:00 <당구스페셜> 2017 리볼  
루 3구선 당구월드컵 예선  
14:00 2017 리틀야구ols스타전  
16:30 <당구스페셜> 2017 포르  
투 3구선 당구월드컵 8강  
19:00 <당구스페셜> 2017 포르  
투 3구선 당구월드컵 준결승

◆ SBS 스포츠  
7:51 17~18 도드람V리그  
10:08 17~18 ISU 쇼트트랙 월드  
컵 3차 하이아이트  
13:56 17~18 도드람V리그  
16:05 17~18 ISU 스피드스케이  
팅 월드컵 차지하이아이트  
18:01 주간배구  
19:02 17~18 ISU 쇼트트랙 월드  
컵 3차 대한민국 하이아이트  
20:57 17~18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한민국 하이아이트

◆ 온스타일  
8:00 갯짓뷰티2017  
9:25 이번 생은 처음이라  
10:40 이번 생은 처음이라  
15:40 갯짓뷰티2017  
17:05 섬총사  
18:30 섬총사  
19:50 비디 액츄얼리  
20:50 비디 액츄얼리  
21:40 이담의 팩트폭격 시즌2  
22:10 원나잇푸드트립: 막방레이  
스

◆ YTN  
8:00 이슈오늘  
10:00 뉴스토워  
12:00 뉴스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율의 시사통  
21:00 뉴스민만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19:00 순위의 재구성

◆ 한국경제TV  
6:00 국무총무부의 아침  
8:00 출발 증시830  
10:00 증시리안 10  
12:00 재테크, 알아야 한다  
13:00 증시리안 13  
15:30 부자 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N  
17:00 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정의주식 사구별구  
20:30 대박천국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이집, 메디컬365  
11:00 TV동물농장  
12:15 <세계 테마 기행> 대륙의  
또거운 삼장, 후베이성 - 1부, 2  
부, 3부, 4부  
15: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기 질투하는 개 쪼꼬  
15:30 <프리미엄 와일드> 와일  
드 차이나-운남성 전설의 야수  
16:30 수미드라 콜볼수 수호 대작전  
17:30 동물농장  
18:45 <개입쇼 유하나>  
19:45 순간포착! 위험한동물들  
20:15 <세계 테마 기행> 남방 알  
프스 기행 스위스 - 1부

◆ MBC 뮤직  
7:55 Good Morning MBC MUSIC  
9:00 무한도전  
10:30 라디오스타  
11:50 나혼자 산다  
13:10 MBC MUSIC HIT SONGS  
13:55 주간아이돌  
15:05 어서와...한국은 처음이지?  
16:30 Show Champion  
18:00 쇼챔피언 비하인드  
19:00 순위의 재구성

◆ 애니맥스  
7:00 넥소나이츠시즌3  
8:00 지오바이스터기다언  
9:00 레인보우 루비  
10:00 웅동불랄 콩순이와 친구들  
11:00 꼬마비스타 태요4  
12:00 아울은너무이상해  
13:00 안녕 자두야  
14:00 헬로우봇5  
15:00 퍼피돌  
16:00 안녕! 고발개발  
17:00 터닝메카드W 시즌2  
18:00 아울은너무 이상해

◆ JTBC 재능방송  
6:00 퍼피구조대  
7:00 넥소나이츠3  
8:00 지오바이스터기다언  
9:00 파워캐치 완다Part 2  
10:00 텔레몬스터  
11:00 꼬마비스타 태요3  
12:00 라비시즌2  
13:00 파워레인저나이트포스  
14:00 유희왕ARC-V  
15:00 애슬론 또는 3  
16:00 소피루비  
17:00 안녕! 노보노보  
18:00 터닝메카드W 시즌2  
19:00 미음의 소리



## 프로그램

## TV 프로그램

\*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 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9 6 3 1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6:10 걸어서 세 계속으로	7:00 MBC 뉴스투데이	6	6:00 모닝와이드	6:00 충청남도 영성소식	6:10 EBS 특별기 통찰
7:50 인간극장	7:00 아침이 좋다	7:20 오늘 플러스	7		6:20 경상남도 교주의 부모교육	7:00 경북에서 살아남기- 마
8:25 아침마당	8: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8:30 생방송 오늘 아침	8		6:30 메디컬 인	7:30 어머니처
9:30 행복한 지도	9:00 TV 소설 꽂파라 달순아	9:30 좋은 아침	9		7:00 은혜로운 말씀	7:30 뾰족한 통 뽀로로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40 여유만만	9:45 기운 좋은 일	10	10:10 SBS 뉴스	9:00 2017 대전시민 생활체육	8:00 디도령 우기원
11:00 국제상 수상작 시리즈 넥스트 휴민	10:50 영화가 좋다	10:50 20세기 소년소녀	11	10:25 SBS 생활경제	9:00 원더풀 조구조	8:45 코코나 디즈
12:00 KBS 뉴스12	11:50 마녀의 법정	12:00 문화 시사	12	11:00 꾸러기 담구생활	9:00 원더풀 토크 부모	9:00 케니얼
12:30 영상앨범 산	12:30 혼자 살기	12:50 헬로키즈 아하! 동물팀 힘	1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0:0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세계테마기행
1:00 네트워크기획문화신문	1:30 드림주니어스페셜	1:35 드림주니어스페셜	2	12:00 SBS 12 뉴스	10:00 대전시민 생활체육	11:40 한국기행
1:50 시나리오 키 콜라보 홍윤연	2:50 자동공부백상 위기2	2:55 꿈꾸려기 식사교실	3	12:50 동성아동2 너는 내 운명	10:00 열전 동네방네	12:00 EBS 정오 뉴스
4:00 4시 뉴스집중	3:20 TV 우체원	3:05 텐 일정 미대	4	1:00 스포츠 클리닉	10:00 콘서트 토크 토크	12:10 시대공급
5:00 KBS 뉴스 5 (수화방송)	3:50 여유만만	3:55 출발! 비디오 여행스페셜	5	2:00 뉴스브리핑	1:30 메디컬 인	12:40 지식채널 e
5:30 동물의 세계	5:00 드래곤 애그	5:00 MBC 이브닝 뉴스	6	4:00 생활의 달인	2:00 화목한 전기	13:40 출판교수 수업 EBS MATH
6:00 6시 내고향	5:30 살림하는 남자들	5:40 별별머느리	7	6: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3:00 뉴스	13:50 원더풀즈
6:40 팔도방송스페셜	6:30 2TV 생생정보	6:10 생방송 오늘 저녁	8	7:00 생방송 투데이	4:00 행복나리	14:00 미술팀 힘
7:00 KBS 뉴스 7	7:50 내 남자의 비밀	7:15 돌아온 복단지	9	8:00 SBS 뉴스	5:00 가고 보고 먹고	14:30 브로드밴드 브로미즈
7:35 우리말 거루기	8:30 브리핑	7:50 MBC 뉴스스케스	10	9:00 생활의 달인	6:00 뉴스와이드	15:00 모피와 친구들
8:25 미워도 사랑해	8:30 글로벌 24	8:35 하우밴드 스페셜	11	10:00 사랑의 온도	7:00 생활의 힘	15:10 세계사 시간여행
9:00 KBS 뉴스 9	8:55 제보자들	8:50 별별머느리	12	11:10 텔라 오디세이 제 주율레	8:00 문학의 힘	15:35 꼬마기사 마이크
9:40 기묘무대	9:00 20세기 소년소녀	9:00 쇼챔피언 비하인드	13		9:00 문학의 힘	15:50 으르차타 아이쿠
10:40 KBS 뉴스라인	11:10 겨울 위의 하이에나	11:10 한편으로 정주행	14		10:00 문학의 힘	16:00 캐나페
11:10 월요기획			15		11:00 텔라 오디세이 제 주율레	16:45 당동 유치원
			16			17:00 당동 유치원
			17			17:30 노보기 풀리
			18			18:00 플레이팅 히트
			19			18:20 톡! 보니 하니 2
			20			18:40 톡! 보니 하니 3
			21			18:45 똑! 우리 몸파일
			22			18:55 톡! 보니 하니 4
			23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24</td			



"여러분들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9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한 공주지구협의회 적십자봉사자들을 도의회 의장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김없이 봉사하는 적십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랑의 사다리 밴드, 소외계층 214명에게 밀반찬 봉사 SNS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5천명 봉사단체 사랑의 사다리 밴드(리더 이정제)가 지난 11일 오전 9시~오후4시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위치한 미림목재(대표 유희성)에서 회원 60명이 참석해서 사랑의 밀반찬을 소외계층 214명에게 전달을 하면서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했다.



탄방동 새마을부녀회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 진행 새마을부녀회(회장 표정미)는 지난 9일 오전 9부터 탄방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200포기(600kg)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백석대 치위생학과, 예비치위생사 선서식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보건학부 치위생학과는 10일 교내 조형관 807호에서 '제7회 예비치위생사 선서식'을 개최하고 치위생사로서의 인류봉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짐했다.



공주대, 시민과 함께 '소통의 1박2일 책읽기 여행' 펼쳐 공주대학교 중앙도서관과 1박2일 독서토론 준비모임 '한살림충남남부지부', 교사독서토론 모임 '간서터' 등 6개 단체는 지난 8일 공주대 도서관 자료실에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1박2일 책읽기 여행 프로그램을 펼쳤다.



온양5동, 사랑의 자전거 선물 아산시 온양5동 복지통장협의회(회장 신종우)는 지난 9일, 찾아가는 복지 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세대에 사랑의 자전거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 한밭대,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지역과 글로벌 협력 강화

### 국제교류 촉진 위한 협의·상호 교류협정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6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대학, 8일 우즈베키스탄 카르시대학과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협의와 대학 간 상호 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체결은 송하영 총장을 비롯해 강희정 국제교류원장, 최종인 기획처장, 임준록 입학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한밭대 대표단이 이집트와 우즈베키스탄 현지를 방문해 이뤄졌다.

알렉산드리아대학은 카이로대학과 함께 이집트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대학으로 1938년에 설립됐으며, 23개 단과대학에 교직원 7,100명, 학생 15만명이 재학 중인 매거드급 대학이다.

이 대학은 아프리카 지역과 지중해 연안 지역의 교육 및 연구의 허브(hub)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대학과도 공동연구,



복수학위과정을 비롯해 교수 및 학생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와의 글로벌 협력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알렉산드리아대학 해삼 가비 부총장은 "한국 대학과의 공식협정 체결은 한밭대가 최초"라고 강조하고, "향후 교수 및 학생들의

실질적이며, 다양한 교류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의 카르시대학은 1992년에 설립됐으며, 교직원 580명, 학생 6,000명이 재학 중인 주립대학이다.

이 대학 역시 한국 대학 중 최초로 한밭대와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며, 협정체결식에 이어

진 유학 흥보설명회에는 카르시대학 학생과 부속 고등학교 학생 300여명이 참석해 한국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복사단원으로 카르시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김용남 교수는 "한국에 대한 순수한 동경을 가진 카르시 학생들이 한밭대 유학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청년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영 총장은 "알렉산드리아대학, 카르시대학과의 협정체결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 학생들의 한국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한밭대 차원에서 잘 수용할 것"이라며,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충남도립대, 국내 최대 규모  
요리경연대회 동상 수상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영)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KOREA 월드 푸드 챔피언십'에서 호텔관광외식과 윤성민(1년) 이범수(1년) 학생이 한팀을 이뤄 동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조리협회와 사단법인 조리기능장려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 국내·외 학생 및 전문 요리사 2,600여명이 출전했으며, 충남도립대 호텔관광외식과는 세계요리 전시경연부문에 참가했다.

이들은 에피타이저로 아끼간을 이용한 안카모, 메인디시로는 참치살에 양송이 버섯을 곁들인 참치 타다기 등을 출품해 호평을 받았다.

충남도립대학교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이번 대회를 위해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 하반기 단일요리대회 중 전국 최대 규모의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상범기자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 창립 112주년 맞아 연차대회 개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유창기(회장)가 대한적십자사 창립 112주년을 맞아 지난 9일 청 문예회관에서 2017년도 대한적십자사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0월 1일 충남지사로 별도 분리 후, 1년 동안 인도주의 사업에 공이 많은 봉사원, RCY 지도교사, 행정기관 관계자 등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회장 표창, 대통령 표창, 충청남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했다.

자등 유공인사 1,216명에게 대한적십자사 표창, 대통령 표창, 충청남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는 관내 약 2만여 명의 적십자 봉사원, 청소년 RCY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적십자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포=김정현기자

대전공동모금회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시행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대전지역 저소득 계층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예상되는 대전지역 저소득층 500세대에 동절기 월동난방비를 기구 당 1만원씩 지원한다.

대전공동모금회 관계자는 "2017년에도 대전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과 사회복지시설·단체의 다양한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충남대 로스쿨,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김솔, 김준영, 김진우)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주최한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 3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서면심사를 통해 12개 팀이 본선인 법정경연을 벌였다.

이정복기자

## 현대제철, 원목 공예 창의체험 교육

### 자유학기제 맞춰 DIY 학용품 만들기 체험 교육

현대제철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 있다.

11월에는 DIY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현대제철 직원 부인이 송신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원목을 이용한 'DIY 학용품 만들기' 이론 및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DIY(Do It Yourself)는 개인이 재료를 구입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창의적으로 조립하거나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을 맞춰 원목을 조립해 학용품을 만들며, 창조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DIY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학기제 취지를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체험교육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이들은 개인이 재료를 구입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창의적으로 조립하거나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을 맞춰 원목을 조립해 학용품을 만들며, 창조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DIY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학기제 취지를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체험교육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농업가치 헌법 반영 1천만명 서명 운동

### 대전농협, 10일 전국 동시 가두캠페인 실시



대전농협은 지난 10일 「농업가치 헌법 반영 1천만 명 서명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역분부, 140개 농·축협 및 은행 영업점, 계열사 등에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대전농협은 「농업인의 날」(11.11.)을 하루 앞두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히이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꼭 반영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과 국토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농협은 지난 2일 「농업 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운동」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 2017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

### 한·미·일 포함 70개국 세계 종교·정치지도자 등 8만 명 참석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2017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2017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2017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를 지난 11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월드컵 경기장에서 70여 개국 종교·정치지도자 2,000여 명 등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8만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회장은 대한민국! 평화의 등불을 게 하소서' 주제로 열린 이날 세계대회는 본 행사 격인 1부 '평화비전 스피치'와 2부 '효정평화공연'으로 꾸며졌다.

아산=리량주기자

## 대투 논단

김현태  
논설고문

## 트럼프를 통해 본 국익우선주의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은 안보와 평화를 봉사한 한마디로 무역 외교였다.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을 기본으로 깊고 아시아 행보를 이어갔다.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정상 회의에서도 그 최종 의도를 명확히 했다. 무역불공정과 보호무역주의의 천명이다. 그러나 이 회의는 결국 다자 무역체제를 지지하고 보호 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은 세일즈외교로 일본과 한국은 대량 무기구매를 얻어내고 중국으로부터는 방증 첫날부터 1조 원의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기염을 토했다. 나이가 무려 2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3조원의 천문학적인 경제협력규모를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방증기간동안 불과 2박 3일 만에 끌어냈다. 이는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록이자 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증을 맞이해 중국은 무역과 대북 압박 분야에서 다양한 성의를 보였다. 심지어 지금 성(紫禁城) 문을 완전히 걸어 잠가 놓고 심장부인 텐안먼(天安門) 광장을 통째로 비우고 트럼프를 환영하며 황제의 전을 베풀었다. 북한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 다니는가 싶더니 이내 무역불균형을 논하며 실리를 취하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의 다시 말해 국익우선주의의 시각을 접하다보니 과거 일본을 '이코노미컬

애니멀(Economical Animal, 경제적 동물)'이라고 칭하던 말이 생각이 난다. 더하면 더했지 그 이하는 아니다. 참으로 대단한 장사꾼 수완이다. 이게 바로 국익을 위하는 철저한 미인드가 아닌가 싶어 역으로 부럽기도 하다. 지도자의 이런 자세가 자국민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비쳤을까 자못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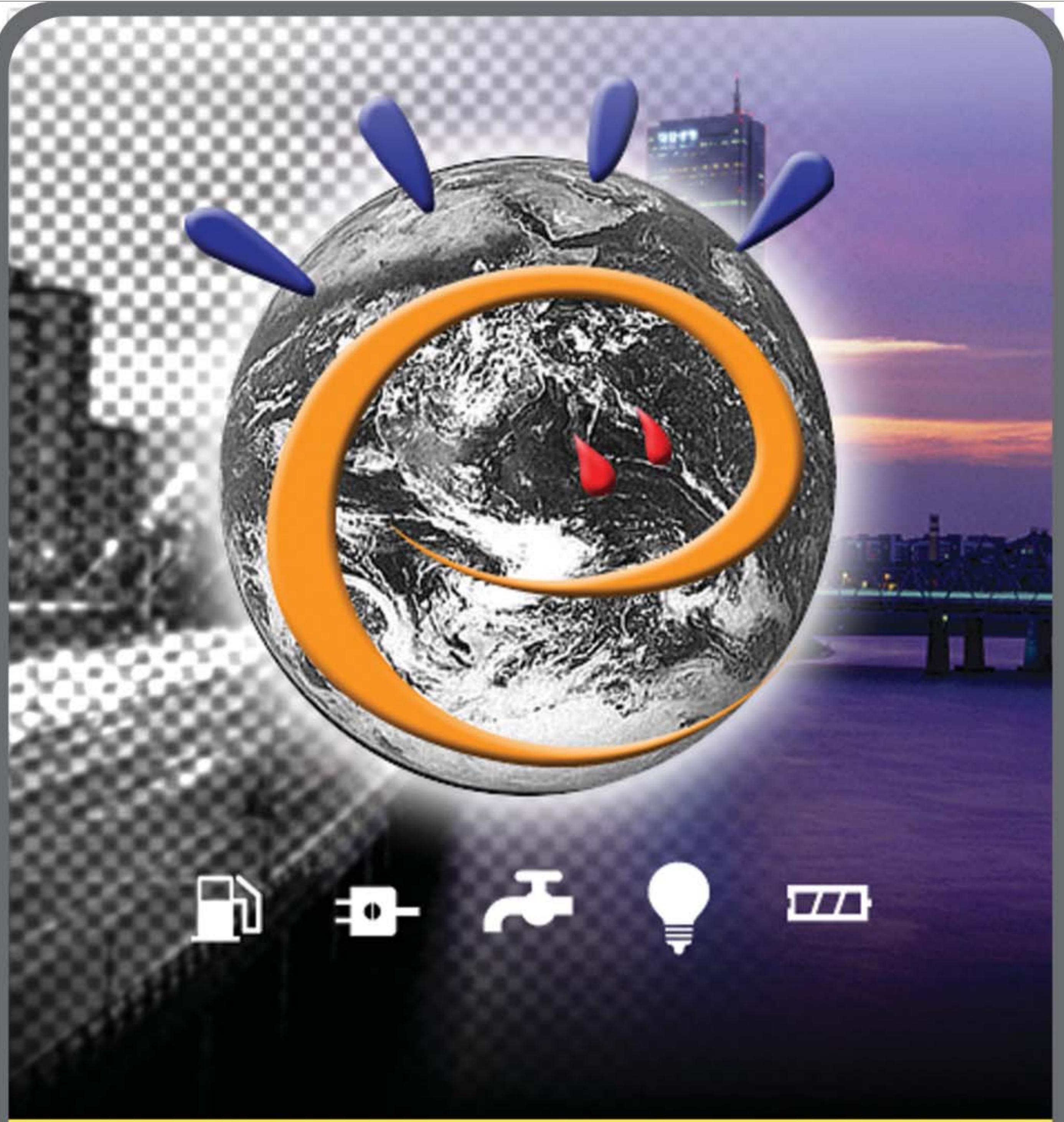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인색하고 교만하며 안하무인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일본 방위력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겠다"며 이양을 펼쳤다. 아베는 이미 이방기에게 여성 기업가 지원기금이방카 펀드에 57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557억 원의 거금을 기부하기로 하는 등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깊은 애교를 다 부렸다. 고통받는 위안부문제에는 10억 엔(100억 원)을 지출하며 인색 했던 아베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수십억 달러, 즉 수조원의 무기를 구입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한발 더 나가 이런 무기구입으로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법임도 강조 했다. 물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인 한국과의 안보동맹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원칙은 재천명했다. 주변에 항공모함 3척이 머물러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에게 미국을 과소평가하거나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장도 던졌다. 어떠한 북한의 위협도 동맹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처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음을 강조 했다. 한미정상은 미사일 탄두증량을 제한하는 것도 해제했다. 우리로서는 이른바 족쇄를 풀 기분이긴 하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의 논리, 무기구매가 중요함을 트럼프는 강조하고 한국 순방을 마쳤다.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빈 방문한 트럼프는 1박 2일의 짧은 방문기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실리를 추구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세일즈외교는 추호의 훈들립이

없이 펼쳐졌다. 일본에서도 그랬다. 중국은 이에 보파리를 다 풀어 제치고 트럼프의 입을 막아버렸다. 북한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중국이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준이었다. 종래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굽실거리며 이양 떠는 전형적인 저페니스 스타일인 일본 아베와 통큰 장사꾼의 모습을 보인 중국 시진핑을 보면서 왜 이들이 이처럼 트럼프에 저자세 일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본과 중국이 더 큰 실리를 얻기 위한 양보포석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른바 뇌로 주고 말로 받으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의 방한에서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과연 어느 수준이었나를 살펴보자.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아니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 환경과 반대의 극명한 행각을 보였다. 이념대립의 현장처럼 비춰졌다. 물론 진보가 모두 좌파라고는 생각 할 수 없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죽을 담당하는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지 궁금하다.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것인지 그 실체를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다수 국민들이 헛길고리기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국회연설에서도 진보정당의 암만한 의원들은 박수도 치지 않고 시종일관 '뚱딴지' 표정이었다. 왜 그 러는지를 밝혀야 한다. 자신들이 말하는 '반공교육'이라 그런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러면 '찬공교육'을 하면 박수를 친다는 말인가. 우리나라가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보수진보, 우파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느냐 북한 공산주의를 지향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현법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야, 진보보수, 좌파우파를 떠나 국익의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안위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떠나 국가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이직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만약에 북을 이롭게 하는 세력들이 국회에 앉아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다른 아国度 아닌 대한민국을 분명히 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한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을 쏘아내며 우리를 위협하는데도 임 한 번 뺏듯이 잊으면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같은 달 13조 9000억 원 증가에 비해서는 3조 9000억 원 줄어든 수준이지만 전월(6조 2000억 원)보다는 3조 8000억 원 더 늘어난 것이다.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주 관 |**



**후 원 |**

